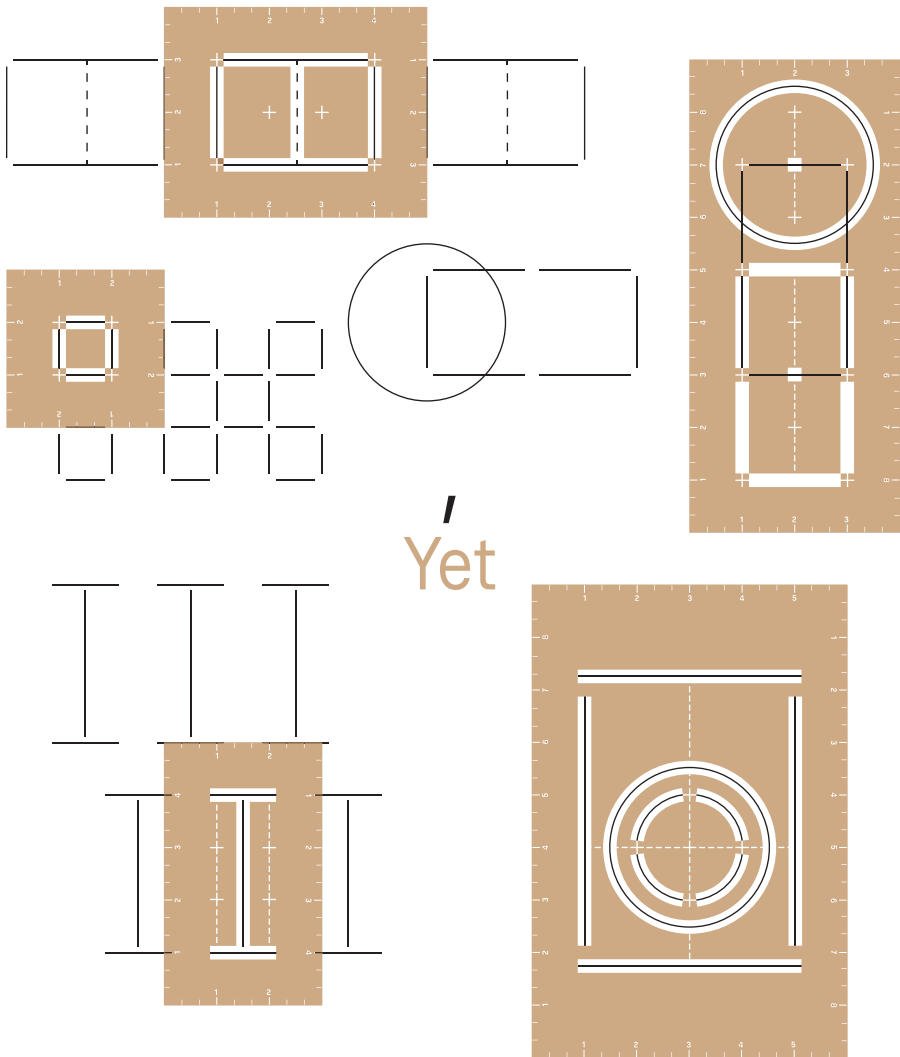


어디|어|도

# Nowhere

어느  
바스

어디|어|나

# Everywhere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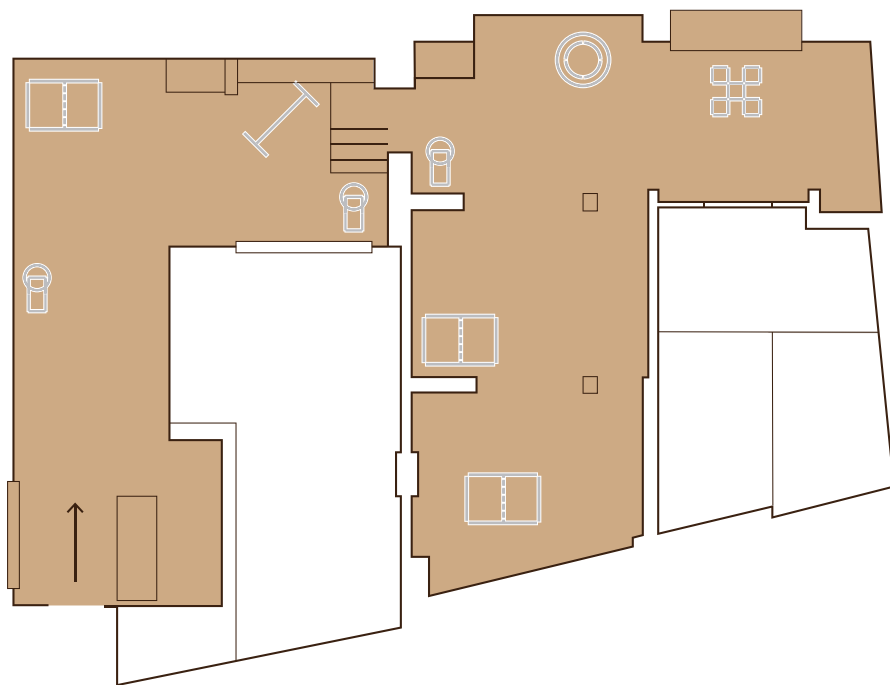
은 희경 개인전  
Hi Kyung Eun Solo Exhibition

2024년 10월 04일 금요일 - 10월 30일 수요일  
오래된 집 · 서울 성북구 성북로 18길 16

## 어디에도 없는, 어디에나 있는 Nowhere yet Everywhere

이것은 어디에도 없는, 그러나 어디에나 있는 유동적이고 불완전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이다. 오랜 시간 공간은 가장 단단하고 안정적인 사물이라고 믿어져 왔지만, 동시대 개인들이 마주하는 공간은 흔들리고, 가벼워지며, 투명해지고 있다. 부유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한곳에 오래 거주하지 않고, 또 못하며, 이동의 과정에서 친밀한 장소의 물리적이고 정서적인 획득과 상실을 반복한다. 마찬가지로 공간도 시간과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거듭한다. 이렇게 누군가의 삶의 장인 공간은 그 스스로도 생존의 주체가 된다. 발전된 이미지 기술과 가상의 확산 또한 공간의 생애에 개입한다. 일상적 장소들은 서로를 뒤덮는 실재와 환상의 모호한 경계 위에 놓여, 그 사이를 걷는 우리로 하여금 공간은 무엇이었고, 무엇이며, 무엇이 되어가는지를 질문하게 한다.

전시는 이러한 현상 안에서 한순간만 존재하거나, 어떠한 순간으로 남게 될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장소들을 불러온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집이 내부의 통로를 통해 연결되었던 전시장의 본래 모습처럼, 전시는 공간이 위치한 곳이자 작가가 나고 자란 장소인 한국과, 그가 이주하여 머물렀던 네덜란드의 여러 공간들을 교차시킨다. 또한 거주했던 집과 같은 내밀한 공간에 대한 기억과, 관찰자로서 지켜본 공간의 변모에 대한 기록이 전시장 안에서 뒤섞인다. 이러한 장소들의 서사는 저마다의 추상화 과정을 거쳐 물성을 얻고, 오래된 집의 지붕 아래에서 잠시 함께 머무른다. 전시는 우리가 경험하는 공간들을 익숙하고 낯선 관점에서, 사적이고 집단적인 시선으로, 안과 밖에서 바라보게 한다. 이 초현실적이지만 만연한 장소로의 초대와 공간의 유동성이 커진 현대적 맥락에서 공간의 삶, 공간과 개인의 관계, 그리고 거주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담론을 만든다.



-  파도치는 집 Waving Home
-  바람 부는 집 Windy House
-  파편 장소 Place Fragment
-  백일몽 Daydream
-  Carriers

은희경은 현대를 살아가는 개인의 일상 속 유동성과 부유하는 존재로서의 경험과 지각을 다룬다. 특히 이동성, 공간, 가상, 신체 등에 주목하며, 불확실한 현실 안에서 개인들이 경험하는 이질적 감각의 혼재-편안함과 외로움, 생동감과 공허, 만족감과 소외 등-를 드러낸다.

그에게 스스로는 현대적 삶을 연구하기 위한 표본이다. 직접 경험하거나 관찰한 평범하고 현실적인 일화, 그중에서도 불안정성과 경계성을 품고 있는 상황들을 파고든다. 탐구의 과정에서 개인의 경험 안에 내포된 심리적, 사회적, 철학적 점들을 연결하고, 현상을 둘러싼 시대적 흐름을 바라보고자 한다.

이야기는 그가 마주한 주관적 현실을 소화하는 방법이다. 직접 시나 짧은 시나리오를 쓰기도 하고, 소설과 같은 동시대의 글을 통해 사건을 바라보기도 한다. 이를 통해 구체적 경험은 은유적 형태로 번역되어 작업의 서사적 재료가 된다. 이야기는 다시 한번 암묵적 언어를 가진 물성을 얻으며, 회화, 조각, 설치의 형태로 번역된다. 그 과정에서 물질과 비물질, 실재와 가상 등 상반된 성질들 사이의 모호한 경계가 실험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업은 서로 다른 요소들이 뒤섞인, 익숙하지만 낯선 하나의 장면을 그린다. 이 만연한 초현실을 통해, 그는 자신과 작업, 그리고 관객 사이의 접점이 생겨나는 시적 순간을 의도한다.

## CONTACT

2024 청년예술지원사업 선정 프로젝트

주최 주관 은희경

후원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eunhikyung.com

eunhikyung@gmail.com

@hikyungeun